



全南大學 同窓會報



총동창회 홈페이지
http://home.jnu.ac.kr

<제486호> 1986년 5월 10일 창간

Th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2026년 2월호>

전남대학교총동창회 2026년 제1차 집행위원회 개최

오는 2월 25일 본회 정기총회 열려

전남대학교총동창회 2026년 제1차 집행위원회가 2월 5일 (목) 오후 6시 30분 뜰안채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본회 류혜경 총동창회장과 회장단, 집행위원, 모교 이근배 총장을 비롯해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집행위원회에서는 '정기총회 일시 확정'의 건, '명예

회원(정원오) 추대의 건', '정기총회 안건 검토'의 건'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으며 위원들의 동의로 원안대로 가결됐다.

기타 안건으로 최희동 수석상임부회장이 '전남대 새병원 건립을 위한 모금운동' 취지를 설명하고 위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류혜경 총동창회장은 "창립 7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내기 위해 집행위원회 위원들과 임직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벌이고 있음에 감사하다"며 "동문,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뜻깊은 70주년 기념행사를 만들기 위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남대학교총동창회장 초청 간담회' 열려



'전남대학교총동창회장 초청 간담회'가 1월 15일 송하회관에서 열렸다.

류혜경 총동창회장이 모교와 전대병원, 화순병원 임직원을 초대해 신년 단합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정신 전남대병원장, 민정준 화순병원장과 병

원 임직원과 모교 이근배 총장과 보직 교수, 본회 오형석 이사장, 최희동 수석상임부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해 모교와 병원 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류혜경 총동창회장은 "전남대학교 총동창회 창립 70주년 주요 행사 가운데 하나로 새병원 건립을 위한 '벽돌 한 장 쌓기'를 동문과 지역민들의 참여로 진행하고 있다"며 "새병원 건립이라는 지역민의 숙원 사업과 창립 70주년 기념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뤄 전남대의 위상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총동창회와 모교, 병원이 더욱 노력해서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전남대학교총동창회 창립 70주년



1956-2026
전남대학교총동창회 창립 70주년
70th Anniversary of the CNU Alumni Association

1956년 7월 8일, 우리나라 최초로 국립대학 총동창회를 창립한 전남대학교총동창회가 2026년 창립 70주년을 맞습니다. 전대인의 자긍심으로 만들어 온 70년, '세대통합, 지역연계, 미래비전'을 주제로 펼쳐지는 동문·재학생·지역민의 한마당, 창립 70주년 기념행사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동문 특별인터뷰 - **신정훈** 부회장 · 제22대 국회의원(전남 나주시·화순군)

“광주·전남 통합은 지역의 미래 생존 전략”

‘자치와 균형’을 중심으로 ‘새로운 지역 정체성’을 함께 세우는 일
국회에서 ‘지속 가능한 통합’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노력

광주·전남 통합에 지역민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의원님께서 전남도의회 의원이었던 1995년부터 광주·전남 통합을 주장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전남 통합 논의에 대한 의원님의 입장과 철학이 궁금합니다.

= 광주·전남 통합 논의는 단순한 행정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 생존 전략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1995년 전남도의원 시절부터 줄곧 ‘광주와 전남은 생활·경제·문화 공동권역이며, 행정적인 경계는 인위적이다’라는 소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생활권은 이미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출퇴근, 교육, 의료, 문화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두 지역은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입니다. 광주·전남의 통합은 변화하는 산업 구조와 인구 흐름 속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미래를 설계해 나가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저는 통합을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자치와 균형’을 강조합니다. 통합은 어느 한쪽의 흡수가 아니라, 새로운 단위의 협력과 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통합 이후 행정의 효율만을 논하기보다는, 지역 내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상생 발전의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는 산업과 문화, 혁신의 중심이고 전남은 에너지와 농수산, 지역 자원의 기반을 이룹니다. 각자의 강점을 살려 ‘한 몸 두 날개’처럼 움직일 때, 통합의 진정한 시너지가 생깁니다.

제도보다 중요한 건 전남도민과 광주 시민의 마음입니다. 통합 논의가 지속 가능하려면 충분한 공론화와 민주적 절차가 필수입니다. 저는 신속이 졸속이 되지 않도록 공론 절차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논의 과정은 단순히 행정 경계 조정이 아니라, ‘새로운 지역 정체성을 함께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광주·전남 통합의 공이 국회로 넘어간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의원님께서 통합 입법 제정 소관 상임위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셔서, 광주·전남 통합이 정부의 의지와 지역의 염원을

제대로 담아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히 두 광역 자치단체의 결합이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 전략 아래 추진되어야 하는 중대한 국가적 프로젝트입니다. 국회는 행정구역 통합의 법적 근거를 넘어, 제도·재정·자치체계를 아우르는 종합적 틀을 설계해야 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므로 저는 무엇보다 ‘지속 가능한 통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 통합 과정에는 지역 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공론화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공청회·간담회·토론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재정구조 개편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행정통합의 성과를 위해 재정 지원이 선행되어야 하며, 단순한 인센티브를 넘어 인프라 조성·산업 유치·공공기관 이전 등 실질적 혜택이 뒤따라야 합니다.

셋째, 통합 후 발생할 수 있는 자치권 충돌이나 행정 공백을 최소화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기존 시·군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자치구의 권한을 강화하여, 광역·기초 간 자치권 배분에 새로운 분권형 모델을 도입해야 합니다.

통합 논의의 성패는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간의 신뢰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만 책임을 돌리지 않고, 행안위원장이셔서 국회가 중재자이자 조정자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광주·전남 통합을 주도하겠습니다. ‘지역이 스스로 만드는 통합’, 그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행정통합이 이루어진다면 광주·전남의 위상이 어떻게 달라질 거라 예상하시는지요?

=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단순히 행정 단위를 하나로 합치는 일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산업구조와 성장 축을 새롭게 재편하려는 ‘5극 3특’ 구상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이른바 ‘메가시티’ 개념이 낙후한 지역을 살리자는 목적에서 출발했다



면,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은 한 단계 높은 차원의 국가 성장 전략입니다.

즉, ‘죽어가는 지역을 살린다’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산업 구조를 재편한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광주·전남 통합은 서남권이 국가 산업 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통합 광역단체가 출범하면, 인공지능(AI)·모빌리티 등 첨단 산업과 해상풍력·에너지·바이오·농생명 산업이 광주전남지역의 중심 산업이 될 것입니다.

두 권역의 결합은 에너지·디지털·농생명·AI·해양물류 등 산업 간 융합 구조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연결은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단순한 지방균형을 넘어 대한민국 산업 전환의 기초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도 산업구조 재편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성장에서 벗어나 다극 체제로 전환해 각 권역이 자생적 성장축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서남권은 광양항·목포항·무안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복합 운송 네트워크를 구축해 동북아 교역의 관문이자 한·중·일 경제벨트의 전진기지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통합 광역단체의 추진력과 기획 기능이 결합하면 국제 물류·에너지·산업이 순환하는 새로운 산업권이 열립

니다.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지역 경쟁력 강화를 넘어 국가 산업 구조와 성장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입니다.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를 넘어 다극적 균형으로 나아가는 지금, 광주·전남은 서남권의 전략 거점이자 ‘지방이 주도하는 국가 성장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통합은 그 출발점입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지역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과 향후 활동 계획과 의원님의 활동을 기대하고 응원하는 동문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통합 논의가 활발해질수록 지역민들의 기대와 걱정이 함께 높아집니다. 행정통합은 삶의 변화를 동반하는 일이라서, 충분히 신중해야 합니다. 저는 그동안 통합을 주장해왔지만, ‘속도보다 공감’이 중요하다고 늘 강조해왔습니다. 통합은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기 문입니다. 끝으로, 전남대 동문 여러분께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한결같이 응원해 주시고, 지역 발전의 길을 함께 고민해 주셔서 힘이 됩니다. 전남대 동문의 응원에 힘입어 통합과 균형발전이라는 과제를 꼭 실현시키고, 우리 후배 세대가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병원 건립 위한 '벽돌 한 장 쌓기 운동' 참여자 인터뷰

■ 최영종(최고경영자과정 10기) 동문

■ 최정원(농업경제·70) 동문

“새병원 건립으로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 받길”

“평소 지역 주민들의 의료 환경이 더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새병원 건립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는 “지금의 기부가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 오랫동안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씨앗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라고 전했다.

최영종 동문은 새병원 건립이라는 의미 있는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었다.

그는 “이를 통해 나눔의 가치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최영종 동문은 “동문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모일 때 학교와 병원, 그리고 지역 사회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며 “크고 작은 금액을 떠나, 함께하는 마음 자체가 소중하다”고 말했다.

최영종(최고경영자과정 10기, 남경종합건설 회장) 동문이 '전남대 새병원 건립을 응원하는 특별회비' 모금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지역민의 의료 환경 개선에 대한 바람 덕분이다.

“새 병원은 단순한 의료시설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라고 생각합니다”

“모교 발전을 위해
작지만 큰 마음 보태길”

“벽돌 한 장이라도 함께 힘을 모으면 새병원 건립이라는 어렵고 힘든 일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마음으로 동참했습니다.”



최정원(농업경제·70, (주)그랜드유통 감사) 동문은 전대병원을 찾을 때마다 오래되고 낡아 그야말로 낙후된 시설을 보며 무척 안타까웠다고.

“지역민의 의료 책임을 전대병원 시설이 현대화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벽돌 한 장 쌓기’라는 좋은 기회로 기부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최정원 동문은 '전남대 새병원 건립을

응원하는 특별회비'에 여러 사람이 함께 힘을 모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새병원이 건립되어서 지역민의 의료 환경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학 시절 학생회장 활동을 했던 최정원 동문에게 전남대는 모교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전남대는 저의 청춘입니다.” 그가 지금까지도 모교와 관련된 크고 작은 일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유이다.

최정원 동문은 “모교 발전에 작은 힘이 되어 주는 손쉬운 방법, 벽돌 한 장 쌓기에 많은 동문들이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했다.

“전남대 새병원 건립을 위해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적은 금액이라도 다수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널리 알려주시고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Table listing donors and their contribution amounts for the hospital construction fund.



2026년 전남대학교총동창회 창립 70주년 기념

전남대 새병원 건립을 응원하는 특별회비 모금

(벽돌 한 장 쌓기 운동)

[참여방법]

- 모금기간 : 2025년 11월 ~ 2026년 12월
● 모금액 : 벽돌 1장당 20만원 (여러장 가능)
● 계좌 : 광주은행 1107-021-552813

전남대학교총동창회 (입금시 이름, 출신학과 등 기재)

* 영수증 발행을 원하시는 분은 전남대총동창회 사무처(062-528-9946)로 연락 바랍니다.

지역사회 숙원 전남대 새병원 건립 - ICT 기반 스마트병원으로

전남대병원 본원 건물은 지어진 지 40년 이상 지난 노후 건축물로 매년 시설 유지보수비용이 병원 재정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비효율적인 동선으로 환자 불편도 큰 상황입니다. 다행히 새병원 건립 사업이 2025년 4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국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총사업비 9,629억원 중 50%에 달하는 자부담 비용 마련이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전남대총동창회에서는 시·도민들의 의지를 한 데 모으고 벽돌 한 장 쌓는 마음으로 새병원 건립을 응원하는 특별회비 모금 운동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취임 2주년 정 신(의학·80) 전남대병원장 인터뷰

전남대병원 새병원 7대 특화 진료체계 갖춘다

“미래 의료 선도할 국립대병원 표준 모델 완성하겠다”

지난 2024년 1월 전남대병원 제34대 병원장으로 취임한 정 신 원장이 최근 취임 2주년을 맞아 아심찬 병원 운영계획을 밝혔다. 다음은 광주일보에서 진행한 정 신 원장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지난 2025년 거둔 가장 큰 성과를 꼽는다면.

= 가장 먼저 미래형 뉴 스마트병원 신축사업 의건립 최종 확정이다. 또 호남권 유일의 제1기 인증연구중심병원 선정과 국가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 등 보건복지부의 대형 사업을 잇달아 유치한 것이다. 그리고 공공기관 만족도 조사에서 국립대병원 중 최고 등급을 획득한 부분도 가장 큰 성과라 생각한다.

새병원 건립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 전남대병원 새병원 건립 사업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핵심 국책사업으로, 현재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진입했다. 지난해 5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하며 총사업비 약 9,629억원, 1,070병상 규모로 확정됐다. 이는 국립대병원 최초의 본원 신축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중증응급 고난도 진료를 책임지는 지역 책임 의료 체계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게 됨을 의미한다. 올해 새병원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며, 이 단계에서 단순한 건축 계획을 넘어 어떤 병원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미래비전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특히 기본계획 단계부터 공기 단축을 고려한 건축 계획을 병행 수립하여, 2027년 설계 착수, 2029년 착공, 2033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새병원은 어떤 콘텐츠로 구축되는가.

= 새병원에는 지역의료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핵심콘텐츠가 담긴다. 먼저, 7대 전문질환센터를 중심으로 한 특화진료 체계를 구축하여 다학제 진료, 연구-진료 통합 모델, ICT 기반 진료를 강화하고 중증 희귀 고난도 질환에 대한 대응 역량을 집중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미래의료를 선도



하기 위해 의료 신기술 도입을 전제로 한 병원 디자인 표준을 수립하고, 스마트 물류 체계 구축을 통해 의료진이 진료와 연구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또한 지속가능성을 핵심 가치로 삼아 신재생 에너지 활용과 친환경 설계 지침을 반영하고,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한 병원모델을 구현할 예정이다.

공간 구성 역시 장기적인 의료 수요 변화에 대응할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계획하며, 교육 연구 부문을 대폭 강화해 진료-교육-연구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국립대병원의 표준 모델을 완성하고자 한다.

전남대병원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펼친 정책은.

= 첫째,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필수 의료의 완결성이다. 지난 2025년, 의정 갈등 장기화라는 초유의 의료 공백 사태 속에서도 전남대병원은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 한 치의 물러섬 없이 현장을 지켰다. 배후진료 역량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고 중증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호남권 의료 안전망의 최후 보루 역할을 완벽히 수행했다. 그 결과 응급의료기관 비상진료 기여도 평가에서 4회 연속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하는 쾌거를 거뒀다. 둘째, 글로벌 메가트렌드 분석에 기반한 미래 의료 육성 전략이다. 2050 글로벌 메가트렌드 분석을 통해 인구구조와 질병 양상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의 핵심 질환군을 정밀 타격하기 위해 뇌졸중, 호흡기, 장기이식, 심혈

관, 외상, 응급, 로봇수술 등 7 대분야를 전략적 핵심클러스터로 선정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 의료클러스터와 함께 첨단 로봇수술과 AI 기반 스마트 진료시스템을 결합하여 건강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호남 의료의 중심축을 완성해 가겠다.

앞으로의 계획은.

= 전남대학교병원은 새병원 건립을 통해 단순히 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넘어, 지역민들이 더 이상 빅5 병원을 위해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지 않아도 되는 완벽한 의료 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 첫째, 진료의 질적 수준을 수도권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초격차 의료 서비스 실현이다. 둘째, 분원별 전문화 전략을 통한 완결적 의료 생태계 완성이다. 셋째, 데이터 기반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한 환자 중심 케어 강화이다. 넷째, 지역사회 소통과 신뢰 구축이다. 다섯째, 국가적 의료 혁신의 모델 수립이다.

우리 병원은 지역민에게는 안전한 필수 의료, 의료진에게는 미래 의료를 실현할 최적의 기반을 제공하는 병원을 만드는 목표를 향해 책임감 있게 나아가겠다.

광주 + 전남
행정통합

더 당연한 자치! 더 거대한 경제! 더 특별한 내일!
행복한 동행의 시작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전라남도 JeollaNamdo



장난삼아 봉화 올린 주나라 유왕과 대한민국 대통령



이금규 (법학·95) 부회장
법무법인 도시 대표변호사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

봉화희제후(烽火戲諸侯). 장난삼아 봉화불을 올려 제후들을 희롱하였다는 고사로 사마천의 사기 주본기(周本紀)에 나오는 이야기다. 주나라 마지막 왕 유왕(幽王)은 포사(褒姒)라는 절세 미인을 얻었으나 예쁜 그녀는 도무지 웃는 법이 없었다.

유왕은 예쁜 이 여인의 웃는 모습이 보고 싶어 별의별 짓을 다했는데, 어느 날 비단이 찢기는 소리를 듣고서 포사가 웃는 것을 본 유왕은 나라의 비단이란 비단은 모두 가져다가 찢었고, 괴기한 취미를 가진 그녀가 웃었으나 대신 나라의 곳간은 텅 비게 되었으며, 포사는 다시 웃음을 잃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봉화불이 오르고 주

나라 제후들이 수도인 호경(鎬京)으로 허겁지겁 달려온 모습을 보고서 웃음이 터진 포사. 포사의 새로운 웃음포인트를 찾은 유왕. 오로지 포사가 웃는 모습을 보려고 외침도 없는데 공연히 봉화를 올리게 하고, 봉화를 보고 달려온 제후들을 보고 웃는 포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왕이었다니, 이 정도면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이상했을 것이다.

양이 풀 뜯어먹는 것을 지켜보는 일이 전부였던 양치기 소년의 지루함은 어린 시절 소 풀 뜯겨본 사람들은 알만도 하다. 심심한 양치기 소년의 '늑대가 나타났다'는 거짓말과 장난은 폭군 유왕과 희대의 악녀 포사의 고사에 비하면, 적어도 나라를 망하게 한 거짓말과 장난은 아니었으므로 귀여운 동화에 불과하다 할 수도 있겠다.

기원 전에 존재했다는 주나라의 고사도, 애초부터 작가가 만들어낸 양치기 소년 동화도 우리는 그것이 고사이고 동화일 뿐 실제 역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재미난 이야기나 교훈 정도로 여겼을 뿐.

그러나 거대야당의 입법독재라는 말 자체도 말이 아닌 억지라 할 것인데, 그 입법독재 때문에, 그리고 실체도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알리고자 무리 비상계엄을 발동하고, 총을 든 군인들

을 진짜로 국회로 보내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하거나 저항하는 시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누게 한 내란의 범행을 저질러놓고서, 대통령이라는 자는 '경고용'이었다고 하고, 경고용 비상계엄을 통해 비로소 입법독재와 국정마비, 부정선거의 실상을 알게 되었다며 '나는 계몽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동양의 고전 사기에 적혀있는 유왕과 포사의 고사나 서양의 양치기 소년 동화를 현실에서 보는 듯한 기시감이 드는 것은 무엇인가?

비상계엄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 앞에 나타났을 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웃음을 짓고 있었을 것이라는 상상까지 보태어보면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대로 믿지도 않았다. 동화책에 있는 이야기야 말 그대로 이야기일 뿐이며, 비록 사마천의 사기같은 역사책에 씌어있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역사적 사실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은 다르다. 우리 모두가, 금세기를 살아가는 세상 사람 모두가 실시간으로 목도한 현실이며, 역사적 사실이다.

절대군주, 왕정의 시대에도 주지육림을 만들어 주색에 빠져 정치는 돌보지 않고 미녀에게 빠져 외적의 침입을

알리는 봉화마저 장난삼아 올렸던 폭군은 역사 속에서도 실제로 죽임을 당하였고, 역사책에 기록되어 영원히 폭군으로 남아 길이길이 욕을 먹건만, 하물며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정의 시대에 5년짜리 선출된 권력에 불과한 자가 장난삼아 국민 경고용, 계몽용으로 봉화불을 올렸다고 하니 기가 막히고, 지금도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혼란스럽기만 하다. 천년 후 사람들은 '에이 설마?' 하며, 전부가 사실은 아니거나 과장되었을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유왕과 포사가 가고 난 후 세상은 바야흐로 춘추전국시대, 세상은 더욱 혼란해지고 시황제를 자처한 진나라에 의해 통일될 때까지 수백 년, 사람들은 유왕의 통치보다 못한 시대를 살아야 했다. 폭군이 사라진다고 성군이 오고, 폭정이 지나갔다고 태평성대가 그냥 오는 것은 아니다.

또다시 선거의 시기다. 다시 선택의 시간이다. 좋은 정치가 > 나쁜지는 않은 정치가 > 좋지 않은 정치가 > 나쁜 정치가 중 우리는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

당연히 좋은 정치가를 뽑아야 한다. 지금은 누가 좋은 정치가이고, 누가 나쁜 정치가인지를 가리는 일이 그리 어렵지도 않아 보인다.

“김선생의 광주사랑” ④ 한국 문인화의 대부(代父) 금봉 박행보

글·그림=김길남(지리교육·77) 동문

1835년, 진도 청년 하나가 해남의 일지암을 찾아온다. 청년에게 그림의 기초를 가르친 초의는 제자를 한양의 추사에게 보낸다. 청년은 두 스승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조선을 대표하는 화가가 된다. 그의 이름은 소치 허련이다.

1959년에는 진도 청년 하나가 춘설헌을 찾는다. 그는 자신이 그려온 그림을 내밀었고, 의제는 그 자리에서 청년을 제자로 받아들인다. 이 청년이 금봉 박행보다. 그 역시 스승의 기대를 뛰어넘는다. "이야기도 좀 하면서 그리지 소갈이 말도없이 온종일 그림만 그리느냐"하면서 웃었다는 스승의 이야기가 춘설헌에 남아있다. 그는 타고난 성품이 과묵하고 근면성실하여 소처럼 우직하게 그림에 매진하는 한편 마음깊이 스승을 흠모했다. "나는 선생님의 곁에 있는 동안 고매한 인격, 따뜻한 인간애, 폭넓은 관용, 도덕적 삶의 가치, 예술가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마음으로 배웠다"고 고백하는 제자, 박행보가 하늘이 낸 천리마였다면 그에게는 백락이 세 분이나 있었다. 그림을 가르친 의재 허백련, 서예를 가르친 소전 손재형, 그리고 20년 가까이 한문을 가르친 만취 위계도 선생이 그분들이다.

금봉 선생의 그림을 감상하면서 동시에 기운이 넘치는 붓글씨를 살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서예에 담긴 한시와 한글 시들이 모두 선생이 직접 지은 작품들이라는 사실도 놓쳐서는 안 된다. 자신의 그림과 시로 시집을 두 권이나 펴낸 화가. 담양과 광주의 가사문화권에 새겨진 수많은 한시를 하나 하나 그림으로 풀어 낸 화가. 또 있다. 본격적인 창작활동을 위해 대학의 교수직을 내 던진 화가. 금봉 박행보 미술관은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과 진도에 있다.

서울총동창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성료

임성주 회장 이임, 심재곤 신임 회장 취임

본회 서울총동창회 '2026년도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이 2월 4일 오후 6시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 3층 총무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제31대 임성주 회장이 이임하고 제32대 심재곤 회장이 취임했다.

이번 행사에는 본회 류혜경 총동창회장 및 회장단과 이개호, 정진욱, 김상욱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근배 총장은 축하영상을 문주남 국회의원은 축전을 보내 축하를 전했다.

또 모교에서 고성석 연구부총장과 보직교수, 윤동규 총학생회장과 동문 등 19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서울총동창회 정기총회 모습

심재곤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22만 재경 지역 용봉 동문들의 결속과 총동창회 발전을 위해 동문들과 함께 호흡하며 노력하겠다"고 전하며 슬로건 '만나고 싶은 동문, 모교를 키우는 동문'과 5대 사업계획을 발표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서울동창회 동문의 공로패를 수여 받은 글로벌세아그룹 김웅기 회장은 축사에서 "우주화가 하정열 화백, 맥도날드 형제, KFC 할랜드 샌더스 등 인생 후반전에 도전한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 조엘오스틴 목사의 '긍정의 힘' 추천 도서와



신임 심재곤 회장, 이임 임성주 회장

'비전을 품어라, 꿈과 희망 놓지 말고 자면서도 꿈꿔라, 불화와 우환이 없으면 발전할 수 없다'며 우리 동문들도 동문과 지역 사회를 위해 진취적인 기상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당일 1천여만 원의 총회 행사비 일체를 협찬했다.

한편 서울동창회는 이후 '용봉가족 건강걷기대회(4월 11일)'와 '모교 5·18 민주주의 길 및 남도 탐방(5월 16~18일)' 행사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다.

/글=위성암(정치외교·85)

서울총동창회 사무1총장

본회·동창장학재단 정기감사 실시

2025년 사업 및 회계업무 등 감사



총동창회 감사



동창장학재단 감사

전남대학교총동창회와 동창장학재단 정기감사가 1월 19일 진행됐다.

재단 사무실에서 열린 동창장학재단 감사는 이성길 감사, 김정민 감사가 진행했으며 2025년에 실시한 사업 및 회계업무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총동창회 2025년 회무 및 회계업무에 대한 감사는 총동창회 사무실에서 이재봉 감사, 김경은 감사의 진행으로 실시했다.

감사 의견으로 '경기 불황 등 어려운 시기임에도 회장님과 임원들을 중심으로 사업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됐다'고 보고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을 명예 동문으로 영입하고, 모교가 글로벌30대학에 선정되도록 측면 지원하였으며, 총동창회 창립 7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사회적 재난(산불, 수해) 구호에 적극 참여하여 동창회의 위상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전남대 총장명예학생 동문회 출범...대학발전기금 1천만원 전달

전남대학교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육성해 온 '총장명예학생'들이 동문회를 통해 하나로 뭉친다.

전남대 교육혁신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지난 1월 23일 대학본부 세미나실에서 '2025 총장명예학생의 날 & 동문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근배 총장과 류혜경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보직교수, 총장명예학생 졸업생·재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총장명예학생은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로 운영되는 전남

대학교의 대표 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2008년 시작돼 현재 18기까지 총 607명의 인재를 선발했다. 졸업생들은 기자, 회계사, 변호사, 재판연구관, 국회비서관, 교사, 교수, 의사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약하며 전남대학교 인재 양성의 성과를 현장에서 증명하고 있다.

류혜경 총동창회장은 축사를 통해 "총동창회 설립 70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에 총장명예학생 동문회가 출범하게 돼 더욱 의미가 크다"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근배 총장은 축사를 통해



"건물보다 사람에 투자하는 것이 대학의 미래를 만드는 길"이라며, "앞으로도 총장명예학생이 더욱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2부에서는 총장명예학생 동문회 출범식과 함께 대학

발전기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새롭게 출범한 총장명예학생 동문회는 동문 169명의 뜻을 모아 대학발전기금 1천만 원을 전달하며, 모교 발전에 대한 애정과 책임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전훈민 총장명예학생 동문회장은 "동문회의 성장을 통해 후배들의 귀감이 되고, 모교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총동창회 설립 70주년을 맞아 총장명예학생 동문회를 'PHS 용봉회'라는 명칭으로 총동창회 산하 조직에 편입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전남대학교는 향후 총동창회와의 연계를 통해 총장명예학생 동문회를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전남대 출신 인재들, 국정 핵심 요직 잇단 발탁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1급 고위 공직 진출 이어져



허민 최현호 송경희 박학민 김성훈 김상경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전남대학교 출신 동문들이 국가 주요 부처와 위원회의 핵심 요직에 잇달아 임명되며, 전남대학교 인재 양성의 성과가 국정 운영의 중심에서 이어지고 있다.

전남대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1월까지 해양수산, 개인정보 보호, 인사 행정, 통일 정책, 농업·농촌 정책 등 국가 운영의 핵심 분야에서 전남대학교 출신 동문들이 장관급 및 1급 고위 공직자로 연이어 임명됐다.

이는 인문·사회·자연·농생명·경영 등 전남대학교의 폭넓은 학문 기반이 국가 정책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

는 사례로 평가된다. 먼저 2025년 7월에는 허민(지질·79) 동문이 제2대 국가유산청장으로 임용된 바 있다.

해양·수산 정책 분야에서는 최현호(해양·90) 동문이 2025년 10월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1급)으로 임명돼, 국가 수산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같은 시기, 송경희(영문·86) 동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장관급)에 취임해, 디지털 전환 시대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어 2025년 11월에는 박학민(행정·86) 동문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차장(1급)에 임명돼 국가 통일 정책 자문 체

계의 실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김성훈(경영·85) 동문 역시 인사혁신처 차장(1급)으로 취임해 공직 인사 시스템 전반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

2026년 1월에는 농생명 분야에서 전남대 동문들의 역할이 이어졌다. 김상경(축산·93) 동문이 농촌진흥청 차장(1급)에, 성제훈(농공·86) 동문이 국립농업과학원장(1급)에 각각 임명되며, 국가 농업 정책과 연구를 현장에서 책임지고 있다.

2월에는 임선숙(사법·85) 동문이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으로 취임해 '인권 친화적 감사,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감사' 등 당면 과제 완수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같은 시기, 김원중(농경·79) 동문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위원장(장관급)에 임명되어 아시아문화중심 도시 조성사업을 이끈다.

의사 윤한덕(의학·86) 동문 7주기 추모식 열려

정은경 장관 “윤한덕의 제도, 대한민국 응급의료의 토대”



고(故) 윤한덕(의학·86)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7주기 추모식이 2월 4일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서 열렸다.

윤한덕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전남대 의과대학과 의과대학 동창회, 광주응급의료지원단이 주관한 이번 추모식은 윤한덕 동문이 생전 국가 응급의료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서해현 윤한덕기념사업회 회장은 추도사를 통해 “윤한덕 센터장은 응급환자가 제때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 중심 응급의료체계를 구현하는데 평생을 바쳤고, 자신의 삶으로 대한민국 응급의료의 길을 만든 분이다”며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뜻을 널리 알리고 후배 의료진과 국민이 함께 기억하고 본받을 수 있는 가치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추모식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해 추모사를 전했다. 정 장관은 “정부

는 고인이 평생 지키고자 했던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가 실현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5회 ‘윤한덕 상’ 수상자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윤한덕 동문은 2002년부터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며 국가 응급의료 정책과 현장 운영을 이끌었다. 국가 응급의료체계 전반을 총괄했으며, 2019년 설 연휴 기간 응급의료상황실 근무 중 과로로 순직했다.

재직 기간 동안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구축, 응급의료기관 평가체계 정립, 권역외상센터 운영 기반 마련,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도입 등 대한민국 응급의료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정부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해 2019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고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로 지정해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있다.

전남대·엠코, 반도체 패키징 공동연구소 출범



전남대학교가 ‘5극3특’ 국토 전략에 따른 권역별 전략산업 육성에 본격 착수한다.

전남대 내에 반도체 패키징 기술 공동연구소를 설립, 글로벌 반도체 패키징 기업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와 함께 국가 균형발전과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동행을 공식화한다.

첨단캠퍼스 반도체 패키징 기술 공동연구소는 고성능·고집적 반도체 시대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패키징 분야에서 실증 연구와 인재 양성을 동시에 수행하는 산학협력 거점이다. 대학이 보유한 교육·연구 역량

과 글로벌 기업의 산업 현장 경험을 결합해, 연구 성과가 산업 현장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구조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자동차·AI 반도체 패키징 기술과 AI 기반 지능형 공정 개선 기술 등 국가 전략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학부·대학원·기업 연구소 간 연계 교육을 통해 지역 정주형 고급 인재 양성 모델을 구현할 계획이다.

이러한 협력을 위해 양 기관은 지난해 6월 산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이후 교육·연구 연계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2026 THE 세계 의과대학 평가서 전남대 의대 ‘국내 거점국립의대 1위’

전남대 의대가 세계 의대 평가에서 국내 거점국립의대 가운데 최고 점수를 받았다. 영국 글로벌 대학 평가 기관인 타임즈고등교육(Times Higher Education·THE)이 발표한 ‘2026 THE 세계 의과대학 순위’에서 전남대 의과대학이 거점국립의대 중 1위, 국내 의과대학 중 10위에 올랐다.

올해 순위에는 102개 국가, 1230개 기관이 포함됐다. 세계

의과대학 순위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최소 500편 이상의 의학·보건 관련 논문 발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 기준을 통과한 국내 의과대학은 27개 대학에 불과하다.

전남대 의대는 이번 평가에서 세계 순위 401~500위 구간에 진입하며 거점국립의대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자과정 총동창회 정기총회 개최

이임 오영수 회장, 신임 권정우 회장 취임



전남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자과정 총동창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이 1월 29일 제이아트웨딩컨벤션에서 성황리

에 열렸다. 16대 오영수 회장이 이임하고 17대 권정우 회장이 취임했다. 이날 행사에는 본회 류혜경

총동창회장, 고준 경영전문대학원장, 정경식 MBA동창회장, 이만선 최고경영자과정 11대 동창회장, 정길용 경영대 11대

동창회장 등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1부 정기총회에서 감사보고 및 2025년 사업내역 및 재무결산 보고 승인, 26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심의 의결 및 토의가 진행됐다.

2부 회장 이·취임식에서 류혜경 총동창회장은 축사를 통해 “역사와 전통의 명문이자 동문 화합과 교류의 네트워크인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자과정 동창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축하한다”고 전했다.

이임 오영수 회장은 “지난 1년이 소통과 화합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동창회 가치를 생각하면 새로운 도약을 위한 동행이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하며 골프회를 맡아 동창회의 단합과 결속을 위한 봉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임 권정우 회장은 “역대 회장님들의 수고와 열정으로 이루어낸 성과를 이어서 작은 힘을 모아서 큰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이진안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 대표, 전남대 명예공학박사 수여

“반도체 산업 발전에 공헌”

전남대학교(총장 이근배)는 1월 12일 전남대 국제회의동 용봉홀에서 이진안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 대표이사에게 명예공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이날 행사는 본회 최희동 수석상임부회장과 모교에서 이근배 총장과 주정민 대학원장 등 보직교수와 학생,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진안 대표는 1996년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에 입사한 후 여러 주요 직책을 역임하며 반도체 산업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 특히 2016년부터는 중국 상하이 사업장 공장장을 맡으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그 역량을 발휘했다.

이근배 전남대 총장은 “이진



안 대표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발전 및 사회 봉사 활동에 공헌한 바가 크다”며 “전남대

는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와 함께 AI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 거점 대학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진안 대표는 학위 소감에서 “전남대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전남대의 젊은 인재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또 “대한민국 반도체 최초 수출 기업인 엠코코리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반도체 패키징 기술 발전에 더욱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여성용봉회, 대학발전기금 1천만 원 기부

본회 여성용봉회(회장 박명숙)가 모교에 대학발전기금 1천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여성용봉회 박명숙 회장(㈜온돌라이프 대표)을 비롯해 이미경 총무(사)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 원장, 이명자 재무(갤러리S 대표) 등 회원들과 이근배 총장과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했다.

이번에 전달된 발전기금은 지역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연구 환경 조성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박명숙 회장은 “작은 정성이 모교 발전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



부를 이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모교와 동문 사회를 잇는 따뜻한 연대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근배 총장은 “기부해 주신 뜻을 소중히 살려 대학의 지속적인 성장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책임 있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성용봉회는 2007년 전남대총동창회 창립 51주년을 계기로 출범했으며, 이후 정기모임과 교류 활동을 통해 회원 간 유대를 강화해 왔으며, 모교 발전을 위한 기부와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봉선지구 모임 개최



본회 봉선지구(회장 황선욱) 모임이 1월 23일 봉선동 모노바스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는 봉선지구 회원 7명이 참석해 근황을 나누고 친목을 다졌다.

■ 김대중(철학·79) 자문위원 출판기념회



‘김대중의 글로컬 미래교육’

김대중(철학·79, 전라남도교육감) 자문위원이 순천 만생대문화교육원에서 ‘김대중의 글로컬 미래교육’ 출판기념회를 열고 전남·광주 지역의 미래교육 비전을 제시했다. 김대중 도교육감은 이날 “지역과 세계를 잇는 글로컬 교육을 통해 전남·광주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싶었다”며 “아이들이 지역에 뿌리내리면서도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 정인화(행정·75) 자문위원 북콘서트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남자의 일생’

정인화(행정·75, 광양시장) 자문위원이 신간 자서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남자의 일생’ 출판을 기념하는 행사를 광양 성황스포츠클럽 다목적체육관에서 개최했다. 북콘서트 형식의 이번 행사에서 집필 배경과 글에 담긴 의미를 직접 설명하며 시민들과 소통한 정인화 광양시장은 “이 자리를 가득 메워주신 시민 여러분의 은혜에 보답할 길은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 박형대(농생물·89) 부회장 정책연구 발표회



‘희망의 씨앗, 장흥을 꽃피우다’

박형대(농생물·89, 전라남도의원) 부회장이 장흥실내체육관에서 ‘희망의 씨앗, 장흥을 꽃피우다’를 주제로 ‘정책연구보고서 발표회’를 개최했다. 박형대 전라남도 의원은 장흥에서 농민운동을 오랜 기간 해 왔으며 2022년 7월 도의원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농민수당을 처음으로 공론화 한 전남 농민수당 실행의 주역이며 재생에너지 공영화 조례 주민발안에도 큰 역할을 하며 눈에 띄는 의정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경영대학동창회, 제80회 전경포럼 및 신년하례회 개최

선흥규, 정경연, 구길용 동문 ‘자랑스러운 경영대인’ 선정



선흥규



정경연



구길용

경영대학동창회가 ‘제80회 전경포럼 및 신년하례회’를 1월 15일 전남대 경영대학 1호관 CBA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전경포럼은 구길용 뉴시스 광주전남지역본부 대표이사(무역·86)가 ‘대전환의 시대, 광주·전

남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연사를 맡았다.

신년 하례회에서는 김제성 경영대학동창회장, 나주몽 경영대학장, 박성수 경영대학동창회 명예회장의 축사가 이어졌고, ‘자랑스러운 경영대인 시상식’이 진행됐다. 선흥규 서현회계법인 대표(경영·78), 정경연 (썬중앙산업 회장(경

제·83), 구길용 뉴시스 광주전남지역본부 대표이사(무역·86)가 선정됐다.

선흥규 서현회계법인 대표는 회계 투명성과 조세 형평성 제고를 통해 사회적 신뢰와 경제적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경연 중앙산업 회장은 석유정제업 및 레미콘 제조업 분야에서 성공적인 사업모델 구축으로 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일조했다.



구길용 뉴시스 광주전남지역본부 대표이사는 지역의 주요 의제를 발굴하고 균형 있는 시각으로 현안을 진단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동백장학금’ 수여자로

선정된 선도솔, 김수진, 변정우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후 기념 촬영을 하고 저녁 만찬을 나누며 참석자 간의 교류와 화합 속에 뜻깊은 신년의 시작을 함께했다.

재경 여수캠퍼스동문회 신년하례회 및 송도호 서울시의원 출판기념회 열려

재경 여수캠퍼스동문회(회장 김종락) 신년하례회가 1월 16일 서울 종로 ‘파노라마’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신년회에는 동문 120여 명이 모여 단합된 모습으로 신년 동문 인사 나눔의 장을 펼쳤다.

이날 서울동창회 심재곤 신임회장, 김해곤 고문, 박양수 포럼회장 등 회장단 및 집행부에서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재경 여수캠퍼스동문회 김종락 회장은 “작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고 지익표 애국



지사의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진행했다”며 “고인이 되신 훌륭한 선배님에 대한 예의이자 존경의 표시로 뜻깊은 1주기 참배행사를 기억하자”고 전했다.

또 “56기 송도호 서울시의원의 출판기념회(관악구청장 출마준비)에 격려와 응원을 보내자”고 당부했다.

무등지구 신년모임



본회 무등지구(회장 장영태) 신년모임이 1월 26일 등촌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는 장영태, 정호

채, 김창현, 이호근, 정현철, 손희하, 김창호, 이태욱, 김태훈, 윤현두, 변연학, 강경민, 이윤모 동문이 참석했다.

동창회보에서 다양한 동문들의 소식을 보도해 드립니다. 이메일 : cnud@hanmail.net 총동창회 사무처 062-528-9946

기암괴봉이 만들어내는 대둔산 겨울 절경

전남대학교총동창산악회 2026년 2월 정기산행기

2월 7일 정기산행일(매월 첫 번째 토요일), 전남대학교총동창산악회(회장 김영필) 회원들은 며칠 전과는 사뭇 다르게 매서워진 겨울바람을 맞으며 대둔산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다.

대둔산은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에 위치한 해발 878m의 산으로, 흔히 호남의 금강산 일명 '소금강(小金剛)'으로 불린다. 계룡산, 부소산 등과 함께 금강의 남서쪽을 지나는 금남정맥의 축을 이룬다.

그만큼 바위로 이루어진 험준한 지형과 절경을 동시에 품고 있다.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인 만해 한용운 선생이 "대둔산 태고사(太古寺)를 보지 않고는 천하의 승지(勝地)를 논하지 말라"는 말이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이유다.

통상 가을 단풍을 만들어내는 수려한 장관을 보기 위해 대둔산을 찾는다. 우리 산악회 역시 지난 2018년 10월에 용봉인 친선등반대회를 통해 이미 대둔산을 다녀간 적이 있다.

하지만 이번 산행은 단풍만큼 아름다운 대둔산의 두 얼굴 중 하나인 '눈꽃'을 만끽하기 위한 것이다. 비교적 체력적 부담과 안전 문제가 큰 겨울 산행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케이블카를 이용하여 주요 지점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하지는 전략을 담았다.

대둔산 공용버스터미널 주차장에서 내린 회원들은 근처 안내판 앞에서 설명을 들은 후 케이블카 승강장으로 이동했다. 대둔산 관광 케이블카는 등산로 초입에 있는 하부역사부터 구름다리 부근의 상부역사까지 선로(927m)가 연결되어 있어, 최대 50명이 약 5분 정도면 도착하고 정상인 마천대까지 2시간 이내 산행이 가능하다.

케이블카에서 내려 본격적인 산행을 시작했다. 계단을 올라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가면 우리나라 최초의 구름다리면서 최초의 현수교인 대둔단 구름다리가 있다. 건너는 사람의 움직임에 바람이 더해져 다리는 쉽 없이 출렁거린다.



다리를 넘으면 다시 철제 계단이다. 삼선계단 아래 도착해보니 이미 사람들로 북적이다. 계단 위에서 사진을 찍느라 자주 멈춰서면서 지체되는 것이다. 51도 경사의 삼선계단 아래를 내려다보면 눈앞이 아찔하고 중간쯤에서는 칼바람까지 부니 온몸에 신경이 곤두선다.

바위로 이루어진 계단을 오르면 능선 삼거리다. 이제야 아직 녹지 않은 눈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마천대 역시 사진을 찍는 사람들로 만석이다. 이번 주 평년보다 따뜻했던 날씨에 눈이 거의 녹아 아쉽게도 눈꽃은 없었지만, 대신 대둔산의 묘미인 깎아지른 듯한 기암괴봉이 만들어내는 겨울 절경에 몸과

마음이 다 시원해졌다. 정상 부근에서 삼삼오오 둘러앉아 준비해 온 점심을 나누는 후, 하산을 시작했다. 내려오는 길에 약수정에 들러 따뜻한 어묵 국물 한잔으로 차가워진 몸을 녹였다. 승강장에 도착해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온 후, 출발했던 주차장으로 돌아와 이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편, 3월 7일(토요일)에는 무등산의 상봉에서 시산제를 하고, 4월 4일(토요일)에는 아름다운 길을 주제로 지리산 둘레길을 갈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서재관 총무(010-6661-1800)에게 하면 된다.

/글=강경민(전남대총동창산악회 산악대장)

광주 남구 지역사랑상품권

설맞이 남구 동행카드 15% 할인 발행 안내

발행시기 2026. 1. 26. ~ 예산 소진 시까지

할인율 15%(카드구매 시 선할인)

발행종류 선불식 카드형(5-10-50만원)

구매처 광주광역시 광주은행 전영업점

사용처 남구 소재 '남구동행카드' 가맹점

유효기간 발행일로부터 5년 **구매한도** 1인당 50만원

※ 사용처 확인 방법 : 남구청홈페이지 > 생활정보 > 산업경제 > 남구동행카드

www.cfuuhf.com

대한약사협회 의료공공성취위원회 상비팀 직 301229-81175250

암치료와 더불어 치유를 주는 병원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희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관심으로
당신의 몸과 마음이 치유 될 때까지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함께하겠습니다.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신임 감사위원에 임선숙(법학·85) 상임부회장 임명

“인권을 존중하는 자세와 국가행정에 대한 전문성”



김호철 감사위원장은 2월 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선숙(법학·85, 로고인법률사무소 변호사) 본회 상임부회장을 감사위원으로 임명해 달라고 제청했다. 임선숙 상임부회장은 광주살레시오

여고와 전남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38회 사법시험에 합격,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인권 변호사로도 활발히 활동하며 한센병 환자 및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해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장, 광주지방변호사회 회

장 등을 지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검찰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임선숙 상임부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인 2022년 9월 이 대통령에 의해 호남권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돼 2023년 3월까지 활

동했다. 감사원은 “인권을 존중하는 자세와 국가행정에 대한 전문성 등을 토대로 인권 친화적 감사,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감사 등 감사원의 당면 과제 완수에 중요한 역할을 할 책임자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감사원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차관급 공직자다. 총 6인으로, 임기는 각각 4년이다.

전남대 광주·여수 학군단 후보생, 괴산 학군교 동계훈련 위문 방문



전남대학교 ROTC총동문회 이정일(공대·85) 회장 및 임원진 6명은 1월 18일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를 방문했다. 회장단은 학군단 간부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동계 훈련을 받고 있는 전남대학교 광주·여수캠퍼스 후보생 23명을 위한 격려 행사를 진행했다. 현장에서 훈련 중인 전남대 후보생들을 만나 훈련 여건과 교육 환경을 살피며,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리더로 성

장해 주길 바라는 선배들의 경험담을 전하며 모교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동기부여를 했다. 한편 ROTC총동문회는 학군단 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교 양성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 방향을 모색하고 전남대 학군단(ROTC)후보생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년 방문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글=김형연 전남대ROTC총동문회 사무총장

서울동창회 인문학트레킹회

한탄강 물윗길 8.2km 강위를 걷다



서울동창회 인문학트레킹회(회장 강영남)는 매년 12월부터 2월까지만 개방하는 한탄강 물윗길을 새해 목적지로 잡았다. 회원들은 1월 24일 영하 6도의 혹한에도 불구하고 설렘을 갖고 한탄강으로 향하는 차에 올랐다. 이날 모임에는 강영남, 박영남, 서재춘, 천병무, 박찬선, 마영흔, 배태옥, 한기일, 양일승, 기세중, 강석식&김희선, 오배균, 김경전, 김원기 회원이 참석했다.

140km 철원 한탄강 중 물윗길(태봉대교에서 순담계곡)은 단순히 강 위를 걷는 이색적인 경험을 넘어, 철새들의 낙원인 철원 평야와 한탄강 주상절리 협곡을 가장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코스였다. 겨울 물윗길을 걷는 경험은 처음이었지만 산악 등반 경험이 많은 동문들 덕분에 안전하게 완주했다. 한편 인문학트레킹회는 2월 28일에 수원 화성과 행궁을 탐방할 예정이다.

NEW

KUMHO TIRE

프리미엄 완성!
SUV 타이어의

CRUGEN GT Pro

취임·승진·수상·출판 등 다양한 동문들의 소식을 알려 드립니다!

계재를 희망하는 동문은 관련자료(사진포함)를 보내주세요. <cnud@hanmail.net, 총동창회 사무처 062-528-9946>

■ 성제훈(농공·86) 부회장

국립농업과학원장 임명



성제훈(농공·86, 전 경기도농업기술원장) 동문이 제10대 국립농업과학원장에 임명됐다. 성제훈 동문은 전남대에서 농기계를 전공해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모두 취득한 농업공학 전문가이다. 1998년 농촌진흥청에 몸담은 이후 농업기계화연구소를 시작으로 국립농업과학원과 농촌진흥청을 두루 거치며 중장기 연구 기획과 정책 조정 업무를 수행했다.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수확 후 관리 기술과 스마트농업 연구를 이끌었고, 2020년에는 농촌진흥청 대변인, 2022년 디지털농업추진단장으로 디지털·데이터 기반 농업 전환을 주도했다. 2024년부터는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을 맡아 지역 농업기술 확산과 현장 적용형 연구를 추진했다.

■ 김상경(축산·93) 부회장

농촌진흥청 차장 임명



농촌진흥청 차장에 김상경(축산·93, 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장) 동문이 취임했다. 전남 장성 출신인 김 신임 차장은 1999년 기술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농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종자생명산업과, 방역정책과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특히 과학기술정책과장 재직시 농식품분야 연구개발(R&D) 체계를 구축하면서 농진청 연구직들과 소통 및 이해를 넓힌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온화한 성격에 합리적 일처리로 직장내 상하간 신뢰가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김원중(농경·79) 부회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위원장 임명



5·18민주화운동 아픔과 통일에 대한 민족 염원을 노래해온 가수 김원중(농경·79) 부회장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장으로 임명됐다. 2월 2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급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위원장으로 가수 김원중을 위촉했다. 전남 담양 출신인 김원중은 1985년 5·18의 아픔을 담은 곡 '바위섬'을 발표하면서 대중에 이름을 알렸다. 1987년에는 발표곡 '직녀에게'를 통해 통일을 바라는 민족의 염원을 풀어냈다. 분단의 현실 속에서 북한 어린이를 돕기 위해 지난 2003년 '북한 어린이를 위한 사랑 모으기' 공연을 시작, 10년이 넘도록 100여차례 공연을 펼쳐왔다.

■ 안창주(축산·86) 부회장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 취임



안창주(축산·86) 동문이 제5대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가 20일 공식 취임했다. 안창주 동문은 전남대학교를 졸업한 후 삼보컴퓨터 사장을 역임했으며 엔솔파트너스 대표와 수원대학교 창업학 교수로 활동해 온 스타트업 전문가다. 풍부한 현장 경험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광주지역의 창업 환경을 한 단계 도약시킬 책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안창주 동문은 취임식에서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미래산업 기술허브 확장, 민간투자자와 공공자원 선순환 체계 강화, 글로벌 진출 지원 체계 강화 등을 핵심 경영 방향으로 제시했다.

■ 김성훈(경영·85) 부회장

인사혁신처 차장(1급) 임명



김성훈(경영·85, 전 인사처 기획조정관) 동문이 인사혁신처 차장에 임명됐다. 김성훈 동문은 1967년생으로 전남 함평 출신으로 전남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미국 콜로라도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41회로 공직에 입문해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실 인사관리 행정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국 기획총괄과장,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인사처 기획재정담당관, 인사조직과장, 인사혁신기획과장 등을 지냈다.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지낸 뒤 인사처 인사관리국장 등을 역임한 인사 행정 분야 전문가다.

■ 안영근(의학·83) 부회장

대한심장학회 회장 취임



안영근(의학·83,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가 대한심장학회 제69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국내 심장학의 학문적 위상을 한층 높이고 국제 무대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영근 동문은 중재시술 분야를 중심으로 진료·연구·교육을 균형 있게 이끌어 온 국내 대표적 심장내과 전문가다. 급성 심근색색증과 복합 병변 치료분야에서 다기관 임상연구를 주도하며 란셋(Lancet) 등 세계 최고 수준의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등 한국 심장학의 표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확장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가치있는 기회도시 광주 + OK! 전남시대

합치면 특별해집니다

지역은 더 부강하게

- 경제 불일요
- 특별한 보상
- 일자리 증가

복지는 더 따뜻하게

- 통합 복지서비스 마련
- 생애전주기 돌봄 강화

교통은 더 빠르게

- 60분 생활권 완성
- 교통 일인 역역 통합

생활은 더 즐겁게

- 문화·관광·체육 인프라 확대
- 축제 행사 공동개최

일상은 더 안전하게

- 광역 의료 체계 구축
- 의료자원 공동활용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시도연 소통 플랫폼

■ 이미란(국문·76) 동문

신임 한국작가교수회 회장 선임



이미란(국문·76, 소설가, 전남대 명예교수) 동문이 신임 한국작가교수회 회장에 선임됐다. 이미란 동문은 최근 서울에서 열린 2025년 정기 총회 및 '작가교수세계' 28호 출판기념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미란 동문은 1983년 광주일보와 1985년 서울신문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했으며 광주일보신춘문학회 회장, 광주문화재단 이사 등을 역임했다.

■ 김주한(의학·87) 동문

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김주한(의학·87, 전남대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장)이 최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제32차 전국 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전국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김주한 동문은 지역 응급대응체계와 예방·관리 시스템 구축을 주도하며 심뇌혈관질환의 통합관리와 진료 연계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김주한 동문은 다년간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치료 수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해 왔다.

■ 김주윤(대학원 생활환경복지) 동문

한국소비자학회 DDC 우수상



김주윤(대학원 생활환경복지) 동문(지도교수 손지연)이 '한국소비자학회 2025-2026(DDC)'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소비자학회가 주관한 이번 경진대회는 소비자학 분야 신진 연구자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박사학위 논문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학술행사다.

■ 박응렬(농학·77) 동문

산티아고 스쿨 개강



'그래서, 산티아고' 저자 박응렬(농학·77) 동문의 '산티아고스쿨 26년 봄강좌'가 부천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열린다. 박응렬 동문의 산티아고 스쿨은 2024년에 시작했으며 250여명의 수강생이 이 과정을 수료했다. 이번 산티아고스쿨은 순례 준비를 위한 마음 자세, 걷기 연습 방법, 식사 해결 방법, 배낭 꾸리기 내용으로 '평일반: 3.10~3.31(화) 19:00~21:00(2시간씩 4회)/ 주말반:3.28~4.4(토) 09:00~13:00(4시간씩 2회)'로 진행된다. 박응렬 동문은 "언젠가는 가보고 싶다"는 막연한 꿈이 '이제는 갈 수 있겠다'는 확신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수강료는 6만원이며 접수는 부천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내용 문의는 010-9630-7004로 하면 된다.

■ 김민자(정치외교·96) 동문

한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 회장 선출



김민자(정치외교·96, 입학처 입학사정관) 동문이 한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 제16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김민자 동문은 '한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 입학사정관 역량강화 교육훈련' 기간 중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전국 대학 입학사정관들의 투표를 통해 최다 득표를 얻었다.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김민자 신임 회장은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2009년부터 현재까지 전남대학교 입학사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총동창회 주요 행사 일정

- 2월 25일 총동창회 정기총회
신임교원 환영 리셉션
- 2월 26일 모교 졸업식
- 2월 27일 모교 입학식

류혜경 총동창회장 주요 동정



- 1월 19일 장학재단 감사, 총동창회 감사
- 1월 29일 경영자과정총동창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 2월 4일 서울동창회 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 2월 5일 2026년 제1차 집행위원회
- 2월 10일 공위공직동문 간담회
- 2월 12일 장학재단 정기이사회
- 2월 13일 창립70주년 행사 추진위원회

全南大學校同窓會報



- 발행인 : 류 혜 경
- 편집인 : 김 영 필
- 발행처 : (재)전남대학교동창장학회
-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275(중흥동)
- 광고문의 : 062) 528-9950
- 062) 528-9946
- 홈페이지 : <http://home.jnu.ac.kr>
- E-mail : cnud@hanmail.net



용봉인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회원님들의 정성 어린 동창회비는 적은 금액이라도
 어려운 형편의 학생 지원, 모교 발전, 동창회 발전 등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회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동문 화합과 모교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 장 류 혜 경 배상

▷ 임원회비 ◁

회 장 : 3,000만원 이상 상임부회장 : 300~500만원 이상 상임이사 : 30만원 이상
 이 사 장 : 1,500만원 이상 부이사장 : 200만원 이상 이 사 : 20만원 이상
 고 문 : 30만원 이상 감 사 : 200만원 이상
 자문위원 : 30만원 이상 부 회 장 : 50만원 이상

계좌번호 : 광주은행 073-127-004515 (예금주 : 전대총동창회)

▷ 일반회원회비 ◁

일반회비 : 3만원 이상 평생회비 : 50만원 이상 계좌번호 : 광주은행 072-107-308738 (예금주 : 전대총동창회)

▷ 장학기금 ◁

계좌번호 : 광주은행 072-107-339964 (재)전남대학교동창장학회

※ 장학기금만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 입금 시 이름, 학과, 입학 연도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고,
 다른 분의 명의로 송금하시거나, 명단이 누락된 분은 총동창회 사무처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처 : Tel. 062-528-9946 / Fax. 062-521-9945 / E-mail. cnud@hanmail.net

연도별 장학금 지급현황

연도	인원	금액 (만원)
1992년	15	750
1993년	15	750
1994년	15	750
1995년	15	750
1996년	30	1,500
1997년	50	3,000
1998년	50	3,000
1999년	27	1,600
2000년	30	1,800
2001년	30	1,800
2002년	26	1,600
2003년	30	1,750
2004년	30	3,840
2005년	30	3,800
2006년	30	3,840
2007년	31	3,960
2008년	29	3,720
2009년	29	3,720
2010년	29	3,680
2011년	27	5,070
2012년	30	5,530
2013년	32	5,970
2014년	32	5,970
2015년	29	4,931
2016년	28	5,750
2017년	23	5,750
2018년	36	6,350
2019년	24	4,750
2020년	24	4,830
2022년	59	9,400
2023년	24	4,800
2024년	25	5,000
2025년	33	6,850
합 계	967	126,561

동창회비 납입 동문 여러분의 정성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2025년 1~12월 분

임원회비 (1월 1일~12월 31일)

- 회 장**
 ▲류혜경(의학·76) 5,000만원
- 이사장**
 ▲오형석(불어불문·83) 1,500만원
- 상임고문**
 ▲이기홍(법학·53) 30만원
 ▲조국현(의학·61) 100만원
 ▲최상준(건축공학석사·58) 30만원
 ▲허 정(의학·70) 50만원
 ▲정인재(토목공학·65) 30만원
 ▲박승현(건축공학·70) 30만원
 ▲조성희(사법·82) 30만원
- 고 문**
 ▲구승룡(의학·72) 100만원
 ▲김남진(경제·60) 30만원
 ▲김세자(간호·71) 30만원
 ▲김안자(간호·62졸) 50만원
 ▲라석찬(의학·57) 50만원
 ▲배지수(요업공학·68) 50만원
 ▲설희석(화학공학·57) 30만원
 ▲이연익(수학·63) 30만원
 ▲이정재(경제·75) 30만원
 ▲임년식(토목공학·58) 30만원
 ▲임청택(경영·61) 30만원
 ▲조복남(국어국문·51) 30만원
 ▲주경석(법학·58) 30만원
 ▲최영관(정치외교·61) 20만원
- 자문위원**
 ▲강신영(화학공학·71) 30만원
 ▲김미원(간호·72) 30만원
 ▲김영진(산업석사·93) 30만원
 ▲공병철(정관·26기) 10만원
 ▲공후식(경영석사·96) 30만원
 ▲구연수(행관·29기) 20만원
 ▲김경호(경영·86) 30만원
 ▲김대중(철학·79) 30만원
 ▲김만웅(최고경영자·5기) 30만원
 ▲김성대(원예·73) 30만원
 ▲김영(화학공학·72) 30만원
 ▲김영길(교육·99) 20만원
 ▲김영진(의학·73) 30만원
 ▲김재화(정관·98) 60만원
 ▲김종근(농업경제·71) 30만원
 ▲김중령(정치외교·74) 30만원
 ▲김주현(경제·75) 30만원
 ▲나용수(산관·17기) 20만원
 ▲문영수(정관·37기) 30만원

- ▲민행배(사회·79) 30만원
 ▲박동만(교육대학원·96) 30만원
 ▲신윤숙(가정교육·72) 30만원
 ▲신종봉(수학·71) 30만원
 ▲오광인(의학·65) 30만원
 ▲오재규(화학공학·72) 50만원
 ▲윤현두(자원공학·70) 30만원
 ▲이선규(행정대학원·6) 30만원
 ▲임우진(법학·73) 30만원
 ▲장문자(여성지도자과정·47기) 30만원
 ▲전상선(산관·09기) 30만원
 ▲정기명(법학·81) 30만원
 ▲정찬구(경제·95) 30만원
 ▲조종태(명예회원) 30만원
 ▲천득엽(건축공학·73) 30만원
 ▲최정원(농업경제·70) 30만원
 ▲최철수(전기·68) 20만원
 ▲최희갑(명예회원) 30만원
- 수석상임부회장**
 ▲최희동(원예·74) 300만원
 ▲김제성(경제·86) 500만원
- 상임부회장**
 ▲강창우(산업공학·92) 100만원
 ▲고병운(건축공학석사·17) 300만원
 ▲김경태(경영·83) 300만원
 ▲김성민(무역·87) 300만원
 ▲김재봉(의학·84) 300만원
 ▲김중서(의학·92) 300만원
 ▲김현화(사학·81) 300만원
 ▲박명숙(수학·87) 300만원
 ▲박정우(무역·85) 100만원
 ▲서영숙(가정관리·85) 300만원
 ▲양부남(법학·80) 50만원
 ▲오경미(산업교육·82) 300만원
 ▲윤경철(의학·88) 300만원
 ▲윤영주(회계·85) 300만원
 ▲이계영(경영석사·3) 300만원
 ▲이승행(정치외교·84) 300만원
 ▲이지현(경제·08) 300만원
 ▲임미선(국사교육·89) 300만원
 ▲임선숙(사법·85) 100만원
 ▲장정희(사법·87) 200만원
 ▲전진숙(화학·88) 50만원
 ▲정만호(경제·85) 300만원
 ▲정혁준(행정·93) 300만원
 ▲홍기천(경영·80) 300만원
 ▲홍승기(경제·98) 50만원
 ▲홍은화(독어교육·83) 300만원
- 부이사장**
 ▲박인철(행정·90) 100만원
 ▲강승희(농학·97) 200만원

- 동창회 감사**
 ▲이재봉(회계·90) 200만원
 ▲김경은(정치외교·99) 50만원
- 장학재단 감사**
 ▲이성길(법학·78) 100만원
 ▲김정민(회계·90) 50만원
- 부회장(집행위원)**
 ▲민정준(의학·85) 50만원
 ▲황윤찬(치의학·92) 50만원
- 단과대회장**
 ▲류상욱(해양·82) 50만원
 ▲박수경(간호·74) 50만원
 ▲서해현(의학·85) 50만원
 ▲오기석(수학·77) 50만원
 ▲윤진학(미술·86) 50만원
 ▲이만선(정관·25기) 50만원
 ▲정경식(경영석사·12) 50만원
- 부회장**
 ▲강상규(행정석사·95) 50만원
 ▲강대관(농업경제·82) 50만원
 ▲강태호(농공학·85) 30만원
 ▲강형선(기계공학박사·02) 50만원
 ▲김홍열(사법·86) 50만원
 ▲고병욱(철학·98) 30만원
 ▲고병익(경제·84) 50만원
 ▲고영중(경영·85) 50만원
 ▲고영철(신소재공학·99) 50만원
 ▲고성욱(최고경영자과정) 10만원
 ▲구동주(경제·82) 50만원
 ▲김건안(사회복지학·19) 50만원
 ▲김경석(법학·79) 50만원
 ▲김남숙(원예·82) 50만원
 ▲김동찬(경제·26기) 50만원
 ▲김명준(사학·85) 50만원
 ▲김영호(의학·79) 50만원
 ▲김보민(미술·08) 50만원
 ▲김보영(정치석사·25) 50만원
 ▲김성원(경영·80) 50만원
 ▲김성훈(경영·85) 50만원
 ▲김성희(사법·91) 50만원
 ▲김영래(문헌정보·81) 50만원
 ▲김옥열(신문방송·85) 60만원
 ▲김용권(디아스포라협동박사·94) 30만원
 ▲김용집(행정대학원·82) 50만원
 ▲김용수(수학·85) 50만원
 ▲김윤세(경제·10기) 50만원
 ▲김재웅(경영·88) 50만원
 ▲김재철(행정석사·12) 50만원
 ▲김재필(축산·82) 50만원
 ▲김정후(영어영문·80) 50만원

- ▲김정희(정치·86) 50만원
 ▲김제승(자원공학·72) 50만원
 ▲김종춘(무역·78) 50만원
 ▲김준안(정치외교·95) 50만원
 ▲김진혁(공학박사·교직원) 50만원
 ▲김평호(사법·89) 50만원
 ▲김해경(경영석사·03) 20만원
 ▲김현중(정치외교·90) 50만원
 ▲김현진(미술·90) 30만원
 ▲나수진(농생물·88) 50만원
 ▲나형운(행정석사·90) 30만원
 ▲노미숙(식품영양·82) 50만원
 ▲노방균(농화학·77) 50만원
 ▲노복균(의학·91) 50만원
 ▲노상익(행관·88) 50만원
 ▲노재형(미생물·92) 20만원
 ▲노진영(산업공학석사·93) 30만원
 ▲노형석(수학·88) 50만원
 ▲류재민(경영석사·02) 30만원
 ▲류현호(의학·89) 50만원
 ▲맹종호(문학·84) 50만원
 ▲맹진(디아스포라협동·13) 50만원
 ▲문기식(행정·79) 30만원
 ▲문병우(지역개발·86) 30만원
 ▲문 인(토목석사·96) 50만원
 ▲문재용(기계공학·85) 50만원
 ▲민기홍(행정석사·09) 50만원
 ▲민상준(경영석사·11) 50만원
 ▲박경우(신문방송·86) 50만원
 ▲박덕희(공법·85) 30만원
 ▲박매호(농학·87) 50만원
 ▲박명숙(국어국문·98) 50만원
 ▲박서연(화학공학·88) 50만원
 ▲박영옥(식품영양·90) 50만원
 ▲박영용(행정석사·13) 50만원
 ▲박용수(과학교육·75) 30만원
 ▲박원(행정·85) 20만원
 ▲박준수(경제·83) 20만원
 ▲박진영(농업경제·91) 50만원
 ▲박철철(치의학박사·17) 50만원
 ▲백지훈(신문방송·90) 50만원
 ▲법희승(의학·76) 50만원
 ▲서애련(사법·92) 50만원
 ▲서영표(정치·23기) 50만원
 ▲서용규(중어중문·84) 20만원
 ▲선종아(농·86) 50만원
 ▲선홍규(경영·78) 50만원
 ▲손찬화(회계·77) 50만원
 ▲손해수(수학·85) 30만원
 ▲손희하(국어국문·75) 50만원
 ▲송갑석(무역·86) 50만원

- ▲송기희(사회·81) 50만원
 ▲송종욱(정치외교·81) 50만원
 ▲신명근(의학·83) 50만원
 ▲신수정(사회문화복지정책·19) 50만원
 ▲심재연(간호·76) 100만원
 ▲안영근(의학·83) 50만원
 ▲양주열(행정·82) 50만원
 ▲양해령(치의학·81) 20만원
 ▲오병석(농학·82) 50만원
 ▲오병석(의학·91) 50만원
 ▲오수진(법학·1) 50만원
 ▲오유나(영어교육·92) 50만원
 ▲오주석(경영·83) 50만원
 ▲우남일(수학·88) 50만원
 ▲위정순(약학·87) 50만원
 ▲윤보선(정관·36기) 50만원
 ▲윤순정(행관·35기) 50만원
 ▲윤승기(행정석사·86) 50만원
 ▲윤 익(미술·84) 50만원
 ▲이경운(행정석사·85) 50만원
 ▲이경준(법학·76) 50만원
 ▲이동원(정치외교·84) 50만원
 ▲이병철(정치외교·87) 30만원
 ▲이상소(행정석사·08) 50만원
 ▲이상식(회계·81) 50만원
 ▲이상현(원예·94) 50만원
 ▲이승룡(건축·78) 50만원
 ▲이승택(의학·82) 50만원
 ▲이연풍(정관·14기) 50만원
 ▲이윤빈(의학·85) 50만원
 ▲이인호(법학·92) 30만원
 ▲이재연(물리화학·96) 50만원
 ▲이준영(도시공학협동·7) 30만원
 ▲임성복(사법·82) 50만원
 ▲임일빈(농학·87) 30만원
 ▲임종대(금속공학·84) 50만원
 ▲임지락(원예·83) 50만원
 ▲임현정(컴퓨터정보·94) 50만원
 ▲장성문(농공학·81) 30만원
 ▲전창주(제약·82) 30만원
 ▲전철오(치의·81) 50만원
 ▲정경연(경제·83) 50만원
 ▲정권희(화학공학·81) 50만원
 ▲정 남(미술·90) 10만원
 ▲정덕근(일반행정·3) 20만원
 ▲정 만(지역개발박사·5) 50만원
 ▲정순근(행관·23기) 20만원
 ▲정영실(경제·85) 50만원
 ▲정장규(정관·28기) 30만원
 ▲정진욱(도시 및 지역개발정책·15) 50만원
 ▲정해정(낙농·85) 50만원

- ▲조봉근(정책·92) 50만원
- ▲조상현(농업경제·82) 50만원
- ▲조영임(무역·84) 50만원
- ▲조진형(치의학·91) 50만원
- ▲조중남(사회·89) 50만원
- ▲주성범(미술·92) 50만원
- ▲주중섭(철학·88) 50만원
- ▲차정민(행정·67) 30만원
- ▲채형욱(회계·89) 50만원
- ▲최동익(수산과학석사·12) 50만원
- ▲최정희(사법·92) 50만원
- ▲최지현(식품공학·91) 50만원
- ▲최준태(농학·81) 15만원
- ▲최현진(무역·89) 50만원
- ▲한태호(원예·88) 10만원
- ▲홍경섭(행정·87) 10만원
- ▲홍인화(생물·83) 30만원
- ▲홍종희(기계공학·70) 50만원
- ▲황선욱(의학·66) 50만원

- 상임이사**
- ▲강경민(법학·99) 30만원
 - ▲문선화(국악·95) 30만원
 - ▲서상우(정치외교·80) 20만원
 - ▲신중혁(산림자원·99) 30만원
 - ▲윤정우(응용화학·94) 30만원
 - ▲이부일(컴퓨터공학·95) 30만원
 - ▲이삼섭(신문방송·10) 30만원
 - ▲이선미(독어독문·02) 30만원
 - ▲이영주(약학·94) 30만원
 - ▲이준근(경관·34기) 30만원
 - ▲정달성(과학교육·99) 30만원
 - ▲정서연(미술·92) 10만원
 - ▲정천규(행관·34기) 30만원
 - ▲조영창(약학·02) 30만원
 - ▲차상혁(산림자원·14) 30만원
 - ▲최고산(21세기 최고지도자·30기) 30만원
 - ▲최규하(윤리교육·96) 30만원
 - ▲최석민(기계공학·08) 30만원
 - ▲최충명(정치외교·98) 30만원

- 이 사**
- ▲임동국(약학·03) 20만원
 - ▲정경훈(약학·11) 20만원
 - ▲전미희(식품생명공학·09) 20만원

평생회비 (1월 1일~12월 31일)

- ▲박은영(사회복지협동·11) 50만원
- ▲하주아(생활환경복지·13) 50만원
- ▲마영원(화학·83졸) 50만원
- ▲김 원(의학·76) 50만원
- ▲한은미(화학공학·82) 50만원
- ▲김양현(철학·80) 50만원

연회비 (1월 1일~12월 31일)

- 간호대학**
- ▲김혜영(간호·91)
 - ▲남상욱(간호·68)
 - ▲문정선(간호·74)
 - ▲서향자(간호·67졸)
 - ▲안정옥(간호·77)
 - ▲이종임(간호·82)
 - ▲최선례(간호·60졸)
 - ▲최영자(간호·73졸)
- 경영대학**
- ▲강대성(무역·76)

- ▲강부암(회계·90)
- ▲고광원(경영·74)
- ▲김남규(회계·84)
- ▲김선윤(경영·83)
- ▲김영곤(경영·87)
- ▲김영철(경영·75)
- ▲김완호(경제·65)
- ▲김윤근(회계·82)
- ▲김재명(경영·87)
- ▲김재인(경영·83)
- ▲김기문(경제·64)
- ▲김영한(경제·80)
- ▲김호현(경제·69)
- ▲김정호(무역·79)
- ▲김태수(경영·80)
- ▲민화식(경제·58)
- ▲박병준(경영·80)
- ▲봉필삼(회계·83)
- ▲소홍석(무역·74)
- ▲송전식(무역·58)
- ▲윤명호(무역·67)
- ▲이문규(무역·87)
- ▲이승국(행정·90)
- ▲이주환(지역개발·86)
- ▲임문규(경영·73)
- ▲정동은(회계·81)
- ▲정선호(무역·77)
- ▲남성우(농화학·85)
- ▲박근중(농학·73)
- ▲박상준(조경·83)
- ▲박인진(농학·66)
- ▲박준기(농업경제·86)
- ▲배현중(임산기공·85)
- ▲변연학(임학·67)
- ▲서영권(농학·69)
- ▲신동길(농업경제·86)
- ▲심재윤(농학·71)
- ▲유충석(임학·78)
- ▲이덕범(임학·77)
- ▲이영승(농화학·83)
- ▲이정옥(임학·69)
- ▲임행진(임학·52)
- ▲임형기(농업경제·67)
- ▲정구선(임학·58)
- ▲조홍근(농학·69)
- ▲최근영(국제·07)
- ▲최안성(축산·82)
- ▲한태호(원예·88)

- 농업생명과학대학**
- ▲기갑서(농업경제·68)
 - ▲김규상(임학·62)
 - ▲김성근(임학·62)
 - ▲김을수(임학·79)
 - ▲김재업(농화학·68)
 - ▲남성우(농화학·85)
 - ▲박근중(농학·73)
 - ▲박상준(조경·83)
 - ▲박인진(농학·66)
 - ▲박준기(농업경제·86)
 - ▲배현중(임산기공·85)
 - ▲변연학(임학·67)
 - ▲서영권(농학·69)
 - ▲신동길(농업경제·86)
 - ▲심재윤(농학·71)
 - ▲유충석(임학·78)
 - ▲이덕범(임학·77)
 - ▲이영승(농화학·83)
 - ▲이정옥(임학·69)
 - ▲임행진(임학·52)
 - ▲임형기(농업경제·67)
 - ▲정구선(임학·58)
 - ▲조홍근(농학·69)
 - ▲최근영(국제·07)
 - ▲최안성(축산·82)
 - ▲한태호(원예·88)

- 공과대학**
- ▲강대욱(토목공학·58)
 - ▲강진하(금속공학·72)
 - ▲고형석(건축공학·61)
 - ▲김관현(토목공학·61)
 - ▲김부용(화학공학·71)
 - ▲김상태(기계공학·75)
 - ▲김신식(화학공학·69)
 - ▲김성규(토목공학·79)
 - ▲김영남(전기공학·70)
 - ▲김영무(전기공학·61)
 - ▲김용백(건축공학·68)
 - ▲김용재(금속공학·70)
 - ▲김인구(토목공학·80)
 - ▲김종근(건축공학·72)
 - ▲김진하(화학공학·69)
 - ▲김현호(금속공학·68)
 - ▲김형주(화학공학·80)
 - ▲노한주(건축공학·70)
 - ▲류정균(화학공학·84)
 - ▲문해주(기계공학·78)
 - ▲박동주(전기공학·61)
 - ▲박순식(토목공학·83)
 - ▲박중호(토목공학·77)
 - ▲백부선(화학공학·55)
 - ▲변영재(요업공학·68)
 - ▲서금렬(공업화학·85)
 - ▲서정철(전기공학·68)
 - ▲손동일(건축공학·83)
 - ▲염종환(기계공학·78)
 - ▲오병수(기계공학·72)
 - ▲오상용(화학공학·69)
 - ▲오일환(전기공학·76)
 - ▲윤대좌(전기공학·72)
 - ▲윤석하(섬유공학·71)
 - ▲윤재화(토목공학·58)
 - ▲이병길(화학공학·58)
 - ▲이용일(화학공학·83)
 - ▲이은수(기계공학·81)

- 법과대학**
- ▲강한주(공법·86)
 - ▲강현섭(법학·72)
 - ▲강홍열(사법·86)
 - ▲김귀중(행정·72)
 - ▲김길원(법학·65)
 - ▲김병하(법학·77)
 - ▲김성희(사법·91)
 - ▲김세곤(법학·71)
 - ▲김철영(법학·57)
 - ▲나현숙(공법·87)
 - ▲문동길(행정·78)
 - ▲박광호(행정·92)
 - ▲박병철(법학·75)
 - ▲배상호(법학·67)
 - ▲유영성(법학·79)
 - ▲윤서강(사법·86)
 - ▲이두백(법학·69)
 - ▲이승국(행정·90)
 - ▲임성섭(법학·74)
 - ▲임성환(법학·74)
 - ▲임정택(법학·63)

- ▲이재동(토목공학·71)
- ▲이한목(토목공학·58)
- ▲이현민(토목공학·87)
- ▲이현균(기계공학·79)
- ▲이형성(토목공학·73)
- ▲이형성(금속공학·76)
- ▲장 희(화학공학·77)
- ▲장상욱(전기공학·72)
- ▲정달성(전기공학·72)
- ▲정우섭(화학공학·70)
- ▲정우홍(기계공학·74)
- ▲정환수(건축공학·70)
- ▲정호채(기계공학·79)
- ▲조대우(요업공학·69)
- ▲지영섭(금속공학·64)
- ▲차승건(토목공학·72)
- ▲천양기(건축공학·70)
- ▲최경중(토목공학·78)
- ▲최문길(전기공학·70)
- ▲최양석(화학공학·89)
- ▲최연수(금속공학·81)

- 의과대학**
- ▲김중덕(의학·75)
 - ▲김종성(의학·77)
 - ▲민혜란(의학·78)
 - ▲박찬연(의학·85)
 - ▲박형보(의학·55)
 - ▲손석준(의학·76)
 - ▲안영인(의학·75)
 - ▲안현영(의학·76)
 - ▲양재우(의학·65)
 - ▲오정호(의학·62)
 - ▲윤영의(의학·61)
 - ▲이기운(의학·79)
 - ▲이유근(의학·61)
 - ▲최정섭(의학·79)
 - ▲허인무(의학·53)

- 인문대학**
- ▲강상욱(사학·88)
 - ▲강성률(철학·79)
 - ▲고지문(영어영문·59)
 - ▲김양현(철학·80)
 - ▲김재봉(국어국문·70)
 - ▲김종욱(철학·72)
 - ▲류순범(영어영문·76)
 - ▲문홍기(국어국문·60)
 - ▲박정준(중어중문·84)
 - ▲성낙준(사학·72)
 - ▲신남영(국어국문·81)
 - ▲엄철주(영어영문·79)
 - ▲이성규(영어영문·81)
 - ▲지경래(국어국문·58)
 - ▲최지희(철학·97)
 - ▲한영호(철학·61)
 - ▲황순영(영어영문·76)

- ▲주천득(법학·58)
 - ▲최준동(행정·71)
 - ▲최태화(법학·58)
 - ▲황의봉(법학·58)
- 사범대학**
- ▲김종해(지리교육·81)
 - ▲박경지(지리교육·79)
 - ▲박종근(불어교육·78)
 - ▲윤준서(생물교육·84)
 - ▲이승오(국어교육·81)
 - ▲장길수(생물교육·82)
 - ▲정경모(영어교육·87)

- 사회과학대학**
- ▲김석병(사회·78)
 - ▲김양순(심리·87)
 - ▲김형국(정치외교·72)
 - ▲박하일(정치외교·54)
 - ▲선국규(사회·79)
 - ▲송재기(정치외교·72)
 - ▲이남기(정치외교·84)
 - ▲이은석(문화정보·84)
 - ▲한성수(정치외교·72)
- 생활과학대학**
- ▲박미림(미류·80)

- 수리과학대학**
- ▲고진구(수리학·73)
 - ▲고태오(수리학·80)
 - ▲문무광(수리학·61)
 - ▲문병현(수리학·73)
 - ▲백병선(수리학·72)
 - ▲성광일(수리학·53)
 - ▲안인숙(수리학·69)
 - ▲임금기(수리학·76)
 - ▲유동현(수리학·56)

- 의과대학**
- ▲김중덕(의학·75)
 - ▲김종성(의학·77)
 - ▲민혜란(의학·78)
 - ▲박찬연(의학·85)
 - ▲박형보(의학·55)
 - ▲손석준(의학·76)
 - ▲안영인(의학·75)
 - ▲안현영(의학·76)
 - ▲양재우(의학·65)
 - ▲오정호(의학·62)
 - ▲윤영의(의학·61)
 - ▲이기운(의학·79)
 - ▲이유근(의학·61)
 - ▲최정섭(의학·79)
 - ▲허인무(의학·53)

- 자연과학대학**
- ▲김애리(계산통계·82)
 - ▲문정호(생물·73)
 - ▲유승권(물리·8)

- 치과대학**
- ▲송진명(치의학·95)
 - ▲최준규(치의학·87)
 - ▲전상민(치의학·00)

- 자율학부**
- ▲정기람(자율·10)

- 교육대학원**
- ▲윤희숙(교육석사·04)
 - ▲조명옥(여성지도자과정·1기)

- 경영대학원**
- ▲이양원(경관·35기)

- 경영전문대학원**
- ▲강대일(경관·27기)
 - ▲고병선(경관·29기)
 - ▲김민수(경영석사·02)
 - ▲김석기(경관·38기)
 - ▲백영팔(경관·38기)
 - ▲유병진(경영석사·90)
 - ▲이유섭(경관·22기)
 - ▲이학재(경관·21기)
 - ▲임중학(경영석사·34기)
 - ▲정광영(경관·27기)
 - ▲허상배(경관·36기)
 - ▲허상배(경관·36기)
 - ▲황경태(경영석사·94)

- 법학전문대학원**
- ▲차기현(법학석사·10)

-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 ▲이일순(체육·16)
 - ▲채복경(간호·05)
 - ▲임근천(체육·18)

-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 ▲류인섭(원예·95)
 - ▲박남규(자원공학·92)
 - ▲유영선(기계공학·1)
 - ▲이복의(교육·05)
 - ▲이일빈(농학·89)
 - ▲조안순(생활환경복지·10)

- 산업대학원**
- ▲권오진(토목공학·12)
 - ▲김진선(산관·10기)
 - ▲민창식(산업공학·15)
 - ▲안경섭(식품외식·18)

- 정책대학원**
- ▲김흥태(행정·5)
 - ▲신승수(행정·2)
 - ▲심재록(최고정책·14기)
 - ▲박성호(행정·0)
 - ▲오승준(행정·91)
 - ▲윤인후(행정·92)
 - ▲이길선(행관·25기)
 - ▲전주언(행정·92)
 - ▲정현철(행정·85)
 - ▲최원섭(행정·4)
 - ▲한동석(행정·99)
 - ▲홍준일(행관·30기)

- 치의학전문대학원**
- ▲김예슬(치의학·15)

- 교직원**
- ▲유희석(교직원)

- 단과대학불문명**
- ▲김종민
 - ▲무기명(00·00)

임원회비 (1월 1일~1월 31일)

상임고문	
정인채(토목공학·65)	30만원
고 문	
김세자(간호·71)	30만원
설희석(화학공학·57)	30만원
양한모(의학·69)	30만원
자문위원	
신종봉(수리학·71)	30만원
최철수(전기공학·68)	30만원
수석상임부회장	
최희동(원예·74)	200만원
상임부회장	
최옥자(간호·87)	100만원
단과대회장	
김용환(수리학·85)	50만원
부회장	
강은미(해양·89)	50만원
김일원(음악·89)	30만원
박필순(불어불문·93)	50만원

최기연(법학·95)	50만원
최해덕(사법·81)	20만원

평생회비 (1월 1일~1월 31일)

- ▲김보현(금속공학·79)
- ▲박준수(기계공학·73)

연회비 (1월 1일~1월 31일)

간호대학	
문정선(간호·74)	
경영대학	
강부암(회계·90)	
기원경(경영·86)	
김영곤(경영·87)	
박임순(지역개발·89)	
왕진태(경제·83)	
한동철(무역·75)	

2026년 1월 분

한성수(회계·82)	
공과대학	
강대욱(토목공학·58)	
김영남(전기공학·70)	
김현호(금속공학·68)	
염종환(기계공학·78)	
윤대좌(전기공학·72)	
이봉욱(금속공학·81)	
이현균(기계공학·79)	
장상욱(전기공학·72)	
정호채(기계공학·79)	
최문길(전기공학·70)	
농업생명과학대학	
강 용(낙농·85)	
기갑서(농업경제·68)	
김재업(농화학·65)	
박금중(농학·73)	
서영권(농학·69)	
양중식(농업경제·66)	
정기환(식품생명·14)	
최안성(축산·82)	
법과대학	

김철영(법학·57)	
박병철(법학·75)	
이두백(법학·69)	
임성환(법학·74)	
사범대학	
이명자(지리교육·86)	
장길수(생명교육·82)	
사회과학대학	
손정태(문화정보·81)	
한성수(정치외교·72)	
수리과학대학	
성광일(수리학·53)	
의과대학	
남광우(의학·78)	
인문대학	
강상욱(사학·88)	
고지문(영어영문·59)	
황순영(영어영문·76)	
자연과학대학	
유승권(물리·08)	
경영전문대학원	
고병선(경관·29기)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채복경(간호·05)	
정책대학원	
배병규(정책·99)	
유병희(사회문화복지정책·17)	
무기명	

<대학원 약칭 범례>

- 경관 :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자과정
- 경최 : 경영전문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 정관 : 정책대학원
- 정석 : 정책대학원 석사과정
- 정최 : 정책대학원 최고정책과정
- 산관 : 산업대학원
- ※ '행정대학원'이 '정책대학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 '경영대학원'이 '경영전문대학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내 고향 여수를 살리고 혜택도 받는 1석2조

여수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에 기부하면
혜택을 돌려받는 고향사랑 기부제!
더 큰 지역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기부금 사용처

-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 ☑ 지역문화·예술·보건 등 증진
- ☑ 주민복지 증진사업 등



여수사랑 고향사랑 기부제



여수고향사랑기부제란?

여수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이 여수시에 기부하고, 여수시는 이를 모아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용하는 제도

기부한도액

1인당 연간 2,000만원 한도, 법인불가

기부혜택

- 혜택 1 세액공제**
 - 10만원까지 100% 전액 공제
 -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44% 공제
 - 20만원 초과 16.5% 공제
- 혜택 2 답례품 제공**
 - 고향사랑기부금의 30% 이내
 - 여수사랑상품권
 - 여수특산품(갓김치,계장,멸치,생선 등)

기부방법

온라인

은행어플로도 가능해요



국민



신한



기입



하나



고향사랑e음 접속 및 가입

자치단체에 기부하기 클릭

(지역선택 : 전라남도 여수시)

기부금 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답례품 둘러보기 클릭

(지역선택 : 전라남도 여수시)

답례품 주문하기

기부부터
답례품 배송까지
원스톱으로!
자동 세액공제까지

오프라인

전국NH농협
방문

기부금
납부

답례품
주문하기